

감옥

Gefängnis

1. 어원 및 개념 정의

감옥은 ‘잡다’라는 동사 ‘fangen’에서 유래한 명사로, 어원적으로 ‘잡혀있는 상태’ 혹은 ‘포로 상태’를 의미한다. 감옥은 전쟁 중 잡힌 포로를 수용하는 곳이며, 범법자의 자유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곳이다. 오늘날 감옥은 징역형(懲役刑)과 금고형(禁錮刑)을 언도 받은 자, 즉 기결수(既決囚)의 형을 집행하는 장소인 교도소를 말한다.

2. 감옥의 역사와 기능



<중세시대의 감옥>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집트에 이미 감옥이 있었고, 중세시대 서양에서는 성문 안쪽의 한가운데에 세운 감시탑 지하에 감옥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영국의 런던탑과 프랑스의 바스티유 감옥과 같은 잘 알려진 감옥들을 보면, 왕이나 귀족의 거처로 사용되던 성이 후에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감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옥은 사람을 처벌하는 장소가 아니라 범죄자를 구금하는 장소였다. 고대 로마시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형벌은 사형과 신체형이었고, 감옥은 범죄자를 처벌 집행 전까지 일정기간 구금해 놓는 장소였다. 구금 기간 중 죄수들을 노역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로마 시대 광산 노동이나 중세 이후 볼 수 있는

성 구축을 위한 노동 등은 구금에 따른 신체형이었다. 이는 범죄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위생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굶주림을 강요하는 상태로 성탑이나 지하에 범죄인을 감금해 놓는 감옥도 많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감옥이 범죄인을 위협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감옥 제도는 오늘날 ‘자유’의 제한’이라는 의미로 개념이 달라진다. 이러한 개

넘은 범죄자에게 감옥이 아닌 교회나 기타 시설에서 강제노동에 의한 규율과 노동에 대한 교육을 피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사형의 배격과 잔혹한 신체형에 대한 인도적 고려 및 다른 형벌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모티프 유형

문학적 모티프로서 감옥은 물리적인 감옥과 함께 정신적인 감옥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자유의 제한 혹은 상실’이라는 의미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자유’를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구속의 형식은 ‘감옥’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감옥의 형상화는 ‘자유에 대한 의지나 요구’가 사회적 규범이나 구속과 충돌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없을 경우 나타난다. 자유의 제한과 상실은 일정한 이야기 진행을 통하여 내면의 자유 혹은 자기인식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개인에 대한 사회 시스템의 우월적인 지위, 혹은 사회적응에 대한 강압적 요구로 나타난다. 심리적 의미에서 감옥은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 두꺼운 벽, 어두운 거리, 음침한 계단, 복잡한 공간 구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문학적 모티프로서 감옥은 다음과 같은 유형화가 가능하다.

1) 범죄인 수용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옥은 우선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다. 문학작품에서 다루어지는 감옥은 대체로 사회적 정치적 혹은 종교적 문제로 억압을 받는 인물들이 원치 않게 수감되는 곳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그려지는 감옥은 지하 감옥과 같이 차갑고 빛이 들지 않는 음산한 장소이며, 미래(탈출)에 대한 희망이 없는 곳으로 나타난다. 뷔히너의 작품 『당통의 죽음』이 대표적인 사례다.

2) 사회로부터의 격리 장소

개인과 집단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충돌, 대립은 약자일수밖에 없는 한 개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자유를 구속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로 자기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거나, 공격적인 성향, 대화의 단절, 이동의 제한 등이 나타난다.

3) 심리적 고립 상태

심리적 고립상태는 사랑을 테마로 다루는 소설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랑의 대상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지나친 욕망과 그로 인한 상대방의 구애 거절은 주변 환경과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고,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이 때 사랑을 거절당한 사람은 환상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며, 관계의 단절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는 정신적 고립상태에 빠져든다. 카프카의 단편소설 『단식광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스스로 단식광대가 되어 새장과 같은 곳에서 단식행위만을 계속하며 심리적 고립상태에 빠져 외부와 소통하지 못한다.

4) 창조적, 성찰적 의미로서의 감옥

감옥 혹은 자유의 상실이 부정적인 의미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감옥에 수감되거나 자유를 상실한 인물은 이를 통해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높은 경지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구속의 상태는 예술적 에너지로 승화되어 창조적인 작품을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서 주인공은 세상과 격리된 산중에서 7년간 머무르며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얻는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법(규범, 규칙)의 위반
	개인과 집단의 요구(요청, 명령) 거절
	사회에 대한 불만, 비판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탄압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 욕망
	현실도피
	정신병
과정	감옥에 갇힘
	탈출 시도
	관계 단절과 거부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
	예술(창조적 활동)에의 몰두
결과	탈출 성공 / 실패
	되찾은 자유
	죽음
	환상 세계로 도피
	예술 작품의 창조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유형지에서 In der Strafkolonie』*

작가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1883-1924)
장르	소설
생성년도	1919
등장인물	<p>탐험가: 탐험 도중에 어느 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사형 집행에 참석한다.</p> <p>장교: 전임 사령관이 만든 사형 집행 장치로 사형을 집행한다.</p> <p>사병: 장교의 명령에 따라 사형 집행을 돕는다.</p> <p>죄수: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사형판결을 받아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p>

5.1. 내용 요약

한 탐험가가 어느 유형지로부터 초대를 받아 이곳에서 벌어지는 한 죄인의 사형집행에 입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사형집행 장소에는 탐험가, 장교, 사병, 죄인. 이렇게 4명이 있을 뿐이다. 죄인의 죄는 단순하다. 보초를 서다 잠이 들었고, 그걸 어느 중사가 발견해 화가 나서 채찍으로 때렸는데, 죄인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사의 다리를 붙잡고 물어버렸다는 것이다. 사과하지 않은 죄가 바로 죄인의 죄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처벌로 사형을 판결 받아 죄수는 지금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죄인에겐 재판이 없다. 따라서 자신을 변호 할 수도 없다.



<『유형지에서』 오디오북>

사형집행 장소에는 이상한 기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형 집행기계다. 장교는 탐험가에게 열심히 이 기계에 대해 설명한다. 사형기계는 12시간동안 죄인을 고문하다가 죄인을 죽이는 잔인한 장치다. 탐험가는 이 제도와 기계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교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 제도와 기계를 찬미한다. 하지만 유형지에 새로 부임한 사령관이 이 제도와 기계의 부당함을 느끼고 그것들을 철폐하려고 한다. 이에 맞서 장교는 이 제도와 기계를 지키기 위해 탐험가를 설득한다. 하지만 탐험가는 이러한 제도와 기계가 부당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킨다. 결국 장교는 자신이 이 제도와 기계를 지키지 못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 기계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 그리고 탐험가는 이 유형지를 떠난다.

* 이주동(역): 유형지에서. 실린 곳: 카프카 전집1, 숲 출판사, 2001. 171-206쪽.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유형: 사회로부터의 격리 장소

서사구조: 한 병사가 상관의 근무태만과 상관 모욕의 죄로 감옥(유형지)에서 최고랑을 차고 형 집행을 기다린다.

원인	법(규범, 규칙)의 위반: 근무태만 및 상관의 요구에 대한 거절
과정	감옥에 갇힘: 유형지에서 사형집행기계를 통해 형을 기다림
결과	죽음: 사형 집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6. 작품 목록

- 뷔히너 Georg Büchner: 『당통의 죽음 Dantons Tod』 (1835)
 카프카 Franz Kafka: 『유형지에서 In der Strafkolonie』 (1919)
 토마스 만 Thomas Mann: 『마의 산 Der Zauberberg』 (1924)
 프리쉬 Max Frisch: 『안도라 Andorra』 (1961)
 바이스 Peter Weiss: 『수사 Der Ermittlung』 (1965)

7. 연계 모티프

권력, 미로, 복수, 사랑, 살인, 소통, 심판, 우연, 예술가, 자유, 자살, 죽음, 탈출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우연 + 감옥 + 탈출 + 복수
스토리	한 남자가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감옥을 탈출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를 한다.